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수집과 재구성을 통한 업사이클 작품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엄 아 룡

수집과 재구성을 통한 업사이클 작품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정 정 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엄 아 룡

# 인 준 서

엄아롱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장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인간에게 있어서 주위환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면 자연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도시속에서 자란 아이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특별히 환경속의 사물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한번쓰고 버려지는 소비풍토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속에서의 수집활동을 통해 인간의 소비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버려진 사물'의 업사이클 활동을 통한 도시속 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고있다.

또한 업사이클 아트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려진 사물'을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만들거나,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버려진 사물'들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를위해 본인의 작품에서는 오브제로서 버려지는 사물이 가지는 속성과 맥락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집과 재구성을 통해 업사이클 아트의 예술적, 조형적 의미를 모색한다.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은 첫번째,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수집활동을 통한 소외되는 오브제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수집된 사물의 재구성을 통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두번째, 수집된 오브제의 색채변화를 통해 숲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표현된 숲을 통한 도시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요소를 분석해 보았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도시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	3
2) ‘버려지는 사물’과 업사이클에 대한 고찰 .....	4
2. 작품표현방법 .....	6
1) 수집활동을 통한 사물의 변화 .....	6
2) 레코드판의 업사이클을 통한 형태표현 .....	7
3) 작품표현에서의 색채연구 .....	8
3. 작품분석 .....	11
III. 결론 .....	27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잊혀진 것들의 만남, 버려진 레코드판, 80x100(cm), 2013 ..... 13
- 【작품 2】 도시의 도베르만, 버려진 레코드판, 180x100x160(cm), 2014 ..... 15
- 【작품 3】 도시의 슈나우저, 버려진 레코드판, 130x70x110(cm), 2014 ..... 17
- 【작품 4】 고래가 될 프로젝트, 레코드판, 막걸리병, 가변설치, 2014 ..... 19
- 【작품 5】 고래가 될 프로젝트(해변의 오브제 I), 해안쓰레기, 가변설치, 2014 ..... 21
- 【작품 6】 고래가 될 프로젝트(해변의 오브제 II), 해안쓰레기, 가변설치, 2014 ..... 24
- 【작품 7】 수집된 숲, 페트병, 지역에서 수집한 오브제, 가변설치, 2014 ..... 26

# I. 서론

서구의 예술·자연 운동은, 산업화가 초래한 환경 파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차 주변환경을 생태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예술가들의 자성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또한 모더니즘이 인간에게서 환경을 박탈하고 예술 활동을 자연에서 분리했다는 의식도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의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은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대중은 지구의 미래, 지구의 자원 그리고 후손들의 삶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예술계보다도 앞질러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하였다.<sup>1)</sup>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은 생존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개발에 따라 지금의 도시는 예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왔다. 오래된 것을 구식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풍토가 생겨나고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열광하며 느리다는 것은 뒤쳐진다는 것으로 대변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기 보다는 빠르고 편리함을 우선시 하게되고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인간과 환경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도시의 영향을 받게되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편리함과 물질적 풍부함은 확실히 향상되었지만 반면에 주변에서 자연이 사라지고 대기과 물의 오염이 진행되어 거주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서서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다.<sup>2)</sup>

본인은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며 도시화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목격하였고,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사물들을 수집하게 되었고 이렇게 모여진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며 버려진 사물을 업사이클을 통해 도시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창작활동들은 본인이 경험한 재개발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환경속에서 형성되었다. 본

1) 자연의 미술가, 김해심, 존K.그란데

2) 도시수변고 인간행동, 구로야나기 아키오/와타나베 히데토시, 김나영, 이한석 역

인의 수집활동과 재구성을 통해 제작된 '버려진 사물'들로 이루어진 숲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버려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첫째, 수집활동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공간과 버려지는 오브제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수집된 오브제가 가지는 성격이 업사이클을 통한 작업으로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하고자한다.

셋째, 업사이클을 이용한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소외된 사물'이라는 재료를 통한 조형적 표현의 특징, 색채연구, 작품 속 내제된 의미,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 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배경

#### 1) 도시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도시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쾰바르트(Werner Sombart, 1863~1941)의 인구도시화 이론에서 '국내에서 도시거주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도시화를 정의한다. 오늘날에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위스(Louis Wirth, 1897~1952)가 주창한 '생활양식의 변동이라는 시점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이 사회에 보편화해 가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한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도시화란 '인간과 물건의 집중이 진행되고 그것에 적응하도록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보편화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주위를 관찰하고 '버려진 사물'을 찾아 나선 행위는 유년시절에 살았던 재개발 지역의 풍경들, 건축자재들의 잔해, 버려진 물건들을 모아 새로운 것을 만들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 유년시절의 동네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지역이었으며 기존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빌딩들이 들어서는 과정속에 있는 동네였다. 작은 집들이 촘촘히 모여 동네를 이루던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큰 빌딩들로 들어차는 과정에서 자라온 것이 지금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폐기되는 자재들과 이전에 살던 집에서 나오는 사물들이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나와 어린시절 친구들은 그러한 것을 수집하여 아지트를 만들곤 했다.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 멈춰버린 시계 등등을 주워 모으며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버려지는 사물'에 관한 생각들이 형성되었다. 누군가에게는 기능이 다하고 쓰임이 다해서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버려지고 소외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3) 도시수변고 인간행동, 구로야나기 아키오/와타나베 히데토시, 김나영, 이한석 역

는 그것이 새로운 쓸모로 다가오는 것들이 흥미롭게 여겨졌다.

위와 같은 유년기의 경험과 축적된 정서는 자연스럽게 '버려진 사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버려진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연들, 사물들이 가지는 특성과 각자의 파장들에 열광했다. 이후에도 이러한 관심들은 지속되었고, 미술의 범주 안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유년시절을 보내던 후암동일대를 떠나 합정동을 거쳐 지금의 거주지인 염리동에 이르게 된다. 거주지역의 이동경로를 보면 줄곧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부모님의 공장이 아현동 일대에 있어 서울의 재개발 지역 속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항상 접하며, 변화해가는 도시를 보며 사물과 도시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형성된다.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라 오래된 고가다리를 철거하며 멸절된 건물들이 재개발되고 쓸만한 물건들이 버려지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와같이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의식과 오래된 것은 낡은 것 이라는 생각들과 함께 편의에 의해 혹은 필요에 의해 소외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본인에게 도시가 오래된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가는 과정이 마치 숲이 사막화되어가는 과정과도 같아 보였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숲을 없애고 숲에서 나온 소재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숲이 사라지고 자연이 사막화되어간다. 이러한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그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2) '버려지는 사물'과 업사이클에 대한 고찰

현대미술의 역사적 의미는, 한마디로 새로운 물질과 재료가 등장하여 기존의 조형재료를 보완하거나 아예 대체해버렸다는 사실에 있다. 버려진 물건을 쓰는

것은 비회화적 구상에서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았다. 20세기초 잡다한 쓰레기를 이용한 아방가르드적 작품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세대 예술가들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갔다. 물론 쓰레기만을 소재로 쓴 예술가는 많지 않다. 예술가 대부분은 작품구성의 상황이나 작가적 영감에 따라 새로운 재료와 낡은 것, 또는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1914년부터 마르셀 뒤샹은 '레디메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어떤 사물에 본디 기능을 벗어난 새로운 표현적 소명을 부여했다. 뒤샹은 자전거 바퀴, 병, 바구니, 눈 치우는 삽 등을 작품으로 소개했는데, 이 물건들은 그에 의해 미적 사명을 완수하며 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며 관람객의 놀라움과 흥미를 자아냈다. 뒤샹은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정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고, 어떤 사물이 예술작품이 된 것은 단지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사원의 수호자'가 지켜온 가치에 반기를 들었다. 뒤샹은 쓰레기를 이용한 도발적인 시도로 예술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현대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sup>4)</sup>

사물은 기능의 의해 형태가 형성되며 쓰임이 결정된다. 쓰임에 다하거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에 소외받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물은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sup>5)</sup>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물은 사물이 가지는 역사와 맥락에 놓여져 있다. 역사속에서 사물의 속성이 부여되며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사물과 접촉하는 인간의 역사와 맥락에 다시 영향을 받게된다. 그리고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순간 전혀 다른 구조와 맥락에 놓이게 되는 속성이 있다. 레코드판이 턴테이블 위에 있을 때, 찻잔 밑에 있을때, 휴지통 안에 있을때, 작품의 재료로 사용될 때, 전혀 다른 메타포로 작용하고 어떤 맥락 속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같이 모든 사물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환경과 역사, 맥락 속에서 살아가게 된

---

4)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인간이 버리고, 줌고, 묻어온 것들의 역사, 카트린 드 실기, 조은미 옮김

5) NAVER 국어사전, 「사물」

다. 업사이클이란 ‘버려진 사물’들이 기존에 가지는 다양한 속성과 맥락들을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행위이다. 기존의 속성과 맥락들이 사라지기도 하며 변형되기도 한다. 업사이클 과정에서 사물간의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사물자체가 변형되기도 한다. 업사이클은 ‘버려진 사물’을 수집함으로써 시작된다. 수집활동은 사물과 공간이 가지는 속성과 파장, 역사성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속에서 수집된 사물들은 각자의 속성과 파장이 집중되어 오브제화 된다. 일반적으로 ‘버려진 사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본래의 자리에서 소외를 경험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고유의 역사와 맥락에 놓여있는 사물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속성, 맥락을 가지고 도시속의 숲을 형성 하여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자리매김을 해나갈 수 있을까?

사물은 놓여진 공간과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몸체에 기록과 기억을 투영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 2. 작품표현방법

### 1) 수집활동을 통한 사물의 변화

수집활동을 지역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다. 본인은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물을 수집하는데 그중 한곳이 제주도 월정리 해변이다. 월정리 해변은 밍크고래가 떠내려온 사연이 있는 장소이다. 월정리 해변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마을에 좋을 일을 가져다 줄거라는 믿음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월정리 해변에 작가가 거주하면서,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해변에 떠내려온 사물들을 수집한다. ‘버려진 사물’의 수집과 재구성 과정에서 사물에 형태가 변하며, 새로운 색채들이 입혀지게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콜라주의 과정과도 비슷하다. 콜라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써오던 기법이지만, 예전에는 주류 예술이라기

보다 일종의 놀이로 여겼다. 그러다가 큐비즘 작가들에 의해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화폭에 의외의 물건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림은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며 물질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조형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브라크는 표면을 여러 층으로 나누려고 신문지를 붙였다. 피카소도 큐비즘의 엄격함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콜라주 작품을 창작했다. 1912년 피카소는 화폭에 등나무 의자처럼 방수포를 붙였다. 그 유명한<기타>는 피카소가 낡은 셔츠를 화폭에 바느질해 붙이고 끈과 옥실용 걸레를 덧붙여 완성한 작품이다.<sup>6)</sup> 이러한 콜라주의 형태는 본인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사물을 수집하고 재구성하는 행위를 통해 작품이 구성된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물이 가지는 맥락이 형성되며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변형된다.

## 2) 레코드판의 업사이클을 통한 형태표현

본인의 작품에서 '소외된 사물'이라는 재료는 예술작품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 주로 사용되는 레코드판과 페트병은 얇고 평면적이면서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보여 줄 수 있는데, 본인은 레코드판과 페트병이라는 가볍고 유연한 재료에 열을 가하여 자유롭게 성형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레코드판은 1932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매체였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잊혀지고, 소외되는 매체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레코드판은 수집활동을 통해 업사이클 된 기본적인 재료인데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매체로 대체되면서 '소외된 사물'이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레코드판은 추억속의 사물이 되었으나, 발명 당시에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사용되었다.

본인의 작업 **[잊혀진 것들의 만남]** 시리즈에서는 레코드판에 열을 가하여 원형으로 레코드판의 중심 부분을 오리고, 그것을 재구성하여 밀집되게 형성되

---

6)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인간이 버리고, 줌고, 묻어온 것들의 역사, 카트린 드 실기, 조은미 옮김

어 있다. 이것은 이전의 쓰임이 상실된 오브제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며, 대중적인 매체였던 레코드판의 재구성을 통해 '소외된 사물'을 새로운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대중적인 매체인 레코드판의 사용으로 친근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또다른 작업 [고래가 될 프로젝트] 시리즈에서는 제주도 월정리 해변에서의 수집활동을 통해 수집된 '소외된 사물'을 통해 고래의 형태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형성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지역적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월정리라는 해변에 밍크고래가 떠내려온 사건을 가지고 있는 월정리 해변은 레코드판을 성형하여 고래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레코드판은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외된 사물'이지만 지역적 특성과 사물의 형태적 변형을 통해 업사이클 되고, 본인은 '버려진 사물'을 수집하여 자연과 인공물간의 대비를 보여준다. 인공물과 자연물의 표면에 색을 칠하기도 하며, 형상화하기도 한다. 본인은 '버려지는 사물'을 자기화 시킨다.

### 3) 작품표현에서의 색채연구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눈은 색이 가지는 아름다움에 매혹된다. 색은 촉각, 미각과 함께 색깔에 대한 피상적 인상은 경험 속으로 발전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sup>7)</sup> 본인의 작품에서 컬러풀한 보색과 검정색은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자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연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재개발 지역에서 자란 본인은 보색의 대비와 검정색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도시속의 사물의 숲을 이미지화 시킨 것이다. 칸딘스키는 '색채'는 소재에 대위법을 제공하며, 그 자체에 무한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sup>8)</sup>고 이야기한다. 색채가 사물에 입혀지는 행위를 통해 사물이 가지는 속성과 맥락의 변화를 가져오며,

7)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86, p51-55

8) 칸딘스키, 앞의책, p68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비를 통해 작가 자신을 보여준다.

색을 볼 때에는 그 색과 관련된 사물이나 인상을 기억하게 되거나 특정문화와 관련지어 연상하게 된다. 특히 색의 연상은 지역이나 환경, 계절,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색이 가진 고유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해온 인간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sup>9)</sup>

본인의 작품 **[수집된 숲]** 시리즈에서는 도시속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사물들에 아크릴 채색을 통해 재개발 환경에서 자란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수집된 사물은 기능에 의해 인간에게 창조된 되었지만 기능의 상실로 인해 '소외된 사물'이다. 기능이 상실된 사물은 마치 흑백의 영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본인은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 도시의 재개발 속에서 유실되는 부분을 보았으며, 흑백 영화처럼 느껴지는 '소외된 사물'들에 새로운 색채를 표현함으로써, 도시의 재개발로 인해 유실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였다.

색채를 입히는 행위는 '소외된 사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하는 색은 재개발로 인한 도시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도시속 인공의 이미지와 대비시켜 버려진 사물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본인은 색과 형태를 통해서 자연과 도시의 연결고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색채 자체는 소재에 대위법을 제공하며, 그 자체에 무한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sup>10)</sup>

본인은 작품형성배경에서 나타난 유년시절의 경험과 급격한 시대의 변화속에서 유실되는 것들을 '색'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소외된 사물'의 채색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도시속 인공의 숲을 형성하여 각박해져가는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9) 이선호·이은경·김민기·오화석, 「COLORIST」, 미진사, 2010, p106

10) 칸딘스티, 앞의책, p68

### 3. 작품분석



【작품 1】 잊혀진 것들의 만남

## 【작품 1】 잊혀진 것들의 만남

연도 : 2013

크기 : 80x100(cm)

재료 : 버려진 레코드판

### 제작방법

1. 버려진 레코드판을 수집한다.
2. 레코드판에 열을 가하여 지름15cm 크기의 원으로 자른다.
3. 잘라진 레코드판을 재배열한다.
4. 재배열된 레코드판을 액자에 고정시킨다.

### 작품설명

수집된 레코드판은 기존의 속성과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레코드판에 작가의 기능과 속성, 이야기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맥락을 가지게 된다.

재배치된 작품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오브제의 형상을 띄며 도시속의 인공물의 재배치를 통해 도시속 일상에서 버려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도록 하며, 작가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 2】 도시의 도베르만

## 【작품 2】 도시의 도베르만

연도 : 2014

크기 : 180x100x160(cm)

재료 : 버려진 레코드판

### 제작방법

1. 버려진 레코드판을 수집하여 세척한다.
2. 동물형상의 골조를 철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3. 레코드판에 열을 가하여 골조위에 형태를 맞춰가며 고정시킨다.
4. 모양을 잡은 후, 형태의 전체적인 부분에 우레탄 코팅제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수집된 레코드판이 개의 형상으로 변형된다. 변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맥락과 속성이 부여된다.

레코드판에 열을 가하여 도베르만의 모양으로 성형하였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레코드판이 가지는 본래의 물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맥락과 속성을 제시하였다. 도시의 도베르만은 도시속의 '버려진 사물'로 소외된 동물들을 표현하며, 소외된 동물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 3】 도시의 슈нау저

### 【작품 3】 도시의 슈나우저

연도 : 2014

크기 : 130x70x110(cm)

재료 : 버려진 레코드판

#### 제작방법

1. 버려진 레코드판을 수집하여 세척한다.
2. 동물형상의 골조를 철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3. 레코드판에 열을 가하여 골조위에 형태를 맞춰가며 고정시킨다.
4. 모양을 잡은 후, 형태의 전체적인 부분에 우레탄 코팅제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레코드판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열을 가하여 형태의 변형을 주었다. 레코드판이 가지는 둥근 형태를 유지하여 대중이 사물과 직접 조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익숙하지만 소외된 레코드판의 원형을 통해 새로운 매체로 대체된 '소외된 사물'들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버려진 사물'을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완견으로 형상화 하여 도시속에서 버려지는 사물들과 소외된 동물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버려진 것들은 친근한 동물로 하여금 대중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외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준다.



【작품 4】 고래가 될 프로젝트

#### 【작품 4】 고래가 될 프로젝트

연도 : 2014

크기 : 300x100x90(cm)

재료 : 버려진 레코드판, 버려진 막걸리병

#### 제작방법

1. 지역에 머물며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토대로 형상을 고민한다.
2. 버려진 레코드판, 막걸리병을 수집하여 세척한다.
3. 동물형상의 골조를 철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4. 레코드판, 막걸리병에 열을 가하여 골조위에 형태를 맞춰가며 고정시킨다.
5. 모양을 잡은 후, 형태의 전체적인 부분에 우레탄 코팅제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제주도 월정리 해변에는 돌고래 떼가 종종 출몰한다. 얼마전에는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떠내려왔다. 이지역에서는 의미가 큰 일이라고 한다. 월정리는 제주도에서도 해변에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장소를 선택하였다. 이곳에 체류하면서 이 지역과 소통하고 자연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지역에서 버려지는 오브제를 수집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하였고 이 작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체류 기간동안 수집활동과 수집된 오브제를 작품화 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자연에서의 소통을 이루어 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이다.



【작품 5】 고래가 될 프로젝트(해변의 오브제 I)



【작품 5】 고래가 될 프로젝트(해변의 오브제 I)

【작품 5】 고래가 될 프로젝트(해변의 오브제 I)

연도 : 2014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해안쓰레기

제작방법

1. 지역에 머물며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토대로 형상을 고민한다.
2. 해안쓰레기를 수집하여 세척한다.
3. 수집된 해안쓰레기를 나열하고 재배치한다.
4. 해안쓰레기를 캔버스위에 형태를 맞춰가며 고정시킨 후 색을 입힌다.
5. 모양을 잡은 후, 형태의 전체적인 부분에 우레탄 코팅제로 마감한다.

작품설명

해안쓰레기로 수집하여 세척하고 나열하여 재구성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물들이 가지는 각자의 속성과 버려진 장소와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속에서 수집된 인공물과 대비시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준다. 보색이 되는 색들은 몽환적인 분위기속의 인공물과 대비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인공물과 자연에서 수집된 사물로 이루어진 작품은 제주도 월정리 지역의 이야기와 그 지역이 가지는 속성을 담고 있으며, 자연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선을 형성한다.



【작품 6】 고래가 될 프로젝트(해변의 오브제Ⅱ)

【작품 6】 고래가 될 프로젝트(해변의 오브제Ⅲ)

연도 : 2014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해안쓰레기

제작방법

1. 지역에 머물며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토대로 형상을 고민한다.
2. 해안쓰레기를 수집하여 세척한다.
3. 수집된 해안쓰레기를 나열하고 재배치한다.
4. 해안쓰레기를 캔버스위에 형태를 맞춰가며 고정시킨 후 색을 입힌다.
5. 모양을 잡은 후, 형태의 전체적인 부분에 우레탄 코팅제로 마감한다.

작품설명

선박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다가 조각나서 바다를 떠돌다가 해안으로 밀려들어온 나무 조각이다. 제주도 월정리 앞바다의 푸른색을 품고 있으며 푸른계열의 색상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작품 7】 수집된 숲

## 【작품 7】 수집된 숲

연도 : 2014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버려진 페트병, 지역에서 수집한 오브제

### 제작방법

1. 지역에 머물며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토대로 형상을 고민한다.
2. 버려진 페트병을 수집하여 세척한다.
3. 페트병에 열을 가하여 골조위에 형태를 맞춰가며 고정시킨다.
4. 모양을 잡은 후, 형태의 전체적인 부분에 우레탄 코팅제로 마감한다.

### 작품설명

나의 작품들은 유년시절에 살았던 재개발 지역의 풍경들, 건축자재들의 잔해, 버려진 물건들을 모아 새로운 것을 만들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

나에게 수집활동은 소외된 사물의 변형과 대비, 조화를 통해 대중들이 자연과 도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의 중요한 과정이다.

도시를 일종의 숲으로 간주하고 도시를 관찰하고 여행하고 수집한다.

버려진 페트병, 레코드판, 바닷가로 밀려온 잔해물, 거리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던 파편들은 불독이 되고 고래가 되고 소외된 동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자의 형상이 되어 소외되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작업으로 삶에 대한 모색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가슴에 축적된 기억들은 내가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 Ⅲ. 결 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편리함과 물질적 풍부함은 확실히 향상되었지만 반면에 주변에서 자연이 사라지고 대기와 물의 오염이 진행되어 거주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서서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다. 인간은 '버려진 사물'과 만날 때 거부와 끌림, 죄의식과 열정이 섞인 기묘한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 대부분은 버려진 사물을 성가시고 혐오스럽고 불안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여긴다. 반면에 실업자나 장애인, 수감자나 퇴직자, 정신질환자나 세상과 단절된 예술가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버려진 사물'을 업사이클하며 본디 목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물은 각자의 쓰임에 의해 형성되거나 버려진다. 사물이 놓여진 공간이나 상황에서 보이듯 인간과 사물의 관계는 기능이라는 관점에 평가받게 된다. 본인은 기능이라는 관점을 뛰어넘어 오브제가 처한 상황과 맥락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이야기를 구축해나가고자 하였다. 오브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과 의미들이 다른 상황과 맥락, 이야기와 마주하였을 때 새로운 가치와 의미들을 형성해나가는 작용을 작업에 적용하면서 쓰임을 다한 사물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와 쓰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축해나가면서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게 되는가를 어렵듯이 이해 할 수 있었다. 사물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 사물들은 의미를 부여받고 다양한 맥락에 놓이며 그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을 작업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각자의 속성을 가진 '버려진 사물'들의 수집과 업사이클을 통하여 인간이 사물에 부여하는 가치의 변동성과 상황과 공간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사물들이 다른 상황과 공간, 형태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버려진 사물’을 수집하여 변형하고 재배치하여 소외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하고, 친근한 동물의 형태로 구현하여 친근함을 준다. 이를 통해 ‘버려진 사물’을 가지고 소외된 동물을 표현하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준다. 이러한 활동들은 ‘버려진 사물’을 기존의 사물을 기능을 뛰어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이선호·이은경·김민기·오화석, 「COLORIST」, 미진사, 2010.
-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86.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2001.
- 마르틴 하이데거, 「숲길」, ㈜나남, 2008.
- 구로야나기 아키오/와타나베 히데토시, 도시수변고 인간행동
- 트린 드 실기, 쓰레기·문명의 그림자-인간이 버리고, 줍고, 묻어온 것들의 역사
-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엮음, 공공미술, 마을이 미술이다
-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 존K 그란데·김해심, 자연의 미술사

### 《홈페이지 및 기타》

- Naver 국어사전, 「사물」

# ABSTRACT

## **The Study on Upcycle through the acquisition and reconstruction.**

–around my works–

Um, A-Lo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rrounding environment makes effects on human in several types. For example, there are lots of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growing in nature and children growing in cities. I have been interested in relations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especially, materials of the environment, by focusing on the fact people are influenced by environment they are living. I express effects of human consumption on the nature through the collecting activities in cities and effects of urban environment on human through the up-cycle activities of 'abandoned materials' with consuming climate materials are abandoned after using them one time.

In addition, up-cycle art makes 'abandoned materials' which can be seen commonly in daily life to the image familiar to people, causes familiarity to people by creating artificial environment and then, causes interests of people in 'abandoned materials' and environment. To achieve them, my work researches

attributes and contexts of abandoned materials by objet and seeks artistic and formative meaning of up-cycle art through the collection and reorganization.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based on the works from 2013 to 2014.

In Chapter 1, Introduction, studying direction and purposes of this work are described.

In Chapter 2, Main body, first, the objet neglected by collecting activities in my work was described and changes of urban environment was studied by reorganization of collected materials;.

Second, a part of forest was expressed by coloring changes of collected objet and effects of urban changes by the expressed forest on human were analyzed.

In Chapter 3, Conclusion, contents of this thesis were arranged and following direction of works was suggested.